

# 한파에... 무안·신안 양파 '서릿발' 피해 확산

### 뿌리 뽑혀 발육안돼 재배농가 울상... 올 생산량 20~30% 줄 듯

무안과 신안 등지에서 한파로 양파 뿌리가 뽑히는 현상이 발생해 재배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1일 일선 시군, 농가 등에 따르면 올겨울 유례없는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땅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서릿발' 피해가 나고 있다.

서릿발 피해는 흑한에 땅이 얼었다가 녹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땅이 서릿발처럼 부풀어 올라 제대로 활착하지 못한 양파 뿌리가 뽑히는 현상이다.

뽑힌 양파를 다시 심더라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데다 그나마 일손도 없

어 상당수 논밭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배수가 불량하거나 정식시기가 늦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한 논밭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작황 부진으로 이어져 올해 생산량이 최소 20~30%는 줄 것으로

농가에서는 보고 있다.

양파의 재배 한계온도는 영하 8℃이지만 이번 겨울 무안과 신안 등 주산지에서는 이를 밑도는 날이 적지 않았다.

재배농민 김모(56)씨는 "양파를 한포기씩 다시 눌러줘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인력을 사서 다시 심는 부담이 커 포기했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양파 재배면적은 모두

7714ha로 무안이 2734ha로 가장 많고 신안(1180ha), 해남(958ha), 함평(857ha), 고흥(535ha) 순이다.

이는 전국 대비 5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남에서는 2만400여농가에 서 연간 2900억원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se@ /무안=김민준기자 jun@

### 송순 문학정신 기린다

#### 담양, 2천만원 고료

#### 문학상 7월까지 공모

담양군은 조선시대 대표 문인인 송순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2회 송순문학상을 7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시(시조), 소설, 아동문학 등 3개다.

대상에는 상패와 함께 20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상패와 함께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10월께 열릴 예정이다.

신청은 담양 송순문학상 운영위원회(담양군청 문화체육과, 061-380-2801)로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유종인 시인이 '사람이라는 재촉들'로 대상을 받았으며 소설은 김혜정 작가의 '독립명랑소녀'가, 아동문학은 유타루 작가의 '별이 뜨는 꽃담'이 수상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 해조류 전문가 양성

#### 완도 1억 들여

완도군이 해조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11일 완도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확보한 국비 1억원을 들여 해조류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2014년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도 대비해 해조류, 전복, 조개 공예와 해조류 가공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교육은 완도 농공단지 내의 해양바이오산업센터에 위탁하기로 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40명을 선발, 다음 달부터 교육에 들어간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해풍에 말린 생선 인기

11일 완도항 내 부둣가에서 한 어부가 생선을 말리고 있다. 비바람에 말린 완도 '해풍 생선'은 인기가 높아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완도군 제공)

## 한약재로 만든 '식방풍 대장염 치료제' 제품화

### 장흥 전남한방진흥원, 특허기술 이전 협약 체결

전남도한방산업진흥원이 개발, 특허를 획득한 '식방풍(植防風) 대장염 치료제'를 도내 기업에 이전하는 등 본격적인 산업화에 나섰다.

전남도한방산업진흥원은 최근 친

환경 유기농 업체인 전남도농산과 식방풍 잎 추출물을 활용한 계양성 대장염 개선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

혔다.

한방산업진흥원은 5년간 5000만원의 기술료를 받는다. 한방산업진흥원은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이 업체가 기술이전으로 연간 1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방풍은 산형과의 갯기름나무의 뿌리로 생김새는 원주형에, 결뿌리가

2~4개 달려 있다. 여수 남면 금호도 등 남해안에서 많이 나며 두통, 해열, 경련, 위궤양 등에 약리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계양성 대장염은 육식을 주로 하는 유럽, 북남미 등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음식문화 변화에 따라 한국에서도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며 병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 숲 캠프장 등 산림휴양시설 확충

### 전남도, 보성·광양 등 176억 투입

김로드, 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산림체험 시설, 숲속의 집 등이 조성된다.

또 광양 백운산 등 각 지역 휴양

림에는 이용객 편의 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등산로, 산책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 확충, 안전한 먹는 물 관리대책이 마련된다.

숲 치유와 산림레포츠 등 휴양림 별 건강테마 프로그램 운영, 산림교육과 숲 체험 활동 지원을 위한 숲해설가와 숲 생태관리인 등도 배치된다.

전남도내 10여개 자연휴양림에는 삼림휴양 등을 즐기려는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는 57만여명이 찾아 모두 20여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3월 간재미·4월 홍어·6월 병어·8월 민어...

## "싱싱한 수산물 맛보러 신안 오세요"

### 월별 수산물 축제 눈길

신안군이 제철 수산물을 주제로 매달 작지만 알찬 축제를 마련했다.

다음달 16~17일 도초면 화도물양장 일대에서 '제1회 간재미 축제'가 열린다. 도초 간재미는 살이 탱탱하고 부드러운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간재미 시식회, 음식 경연대회 등이 열린다.

4월 27~28일에는 '제6회 신안 홍어축제'가 흑산도 예리항에서 개최된다. 홍어 썰기 대회 등이 색채되도 열린다.

흑산 홍어는 신선한 회로도 먹지만, 삭혀 먹을 때 꼬골을 쓰는 특유의 맛을 낸다. '황산 콘드로이탄'이라는 물질이 다량 함유돼 관절염, 기관지 천식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6월(1~9일)에는 병어의 고장인 지도 송도에서 병어 축제가 열린다. 신안 해역에서 잡히는 병어는 살이 탱탱하고 비린내가 적

다. 세포의 산화를 막아 폐를 보호하고, 노화의 주범인 과산화 지질의 형성을 억제하는 비타민E 성분도 많다.

8월(3~4일)에는 민어축제(임자 대광해변)가, 9월(14~15일)에는 왕새우 축제(장산면)가 각각 열린다. 민어는 신안 대표 수산물 중의 하나로 여름철 최고의 보양식이다. 소화 흡수가 용이 어린이 발육촉진이나 노인 등의 체력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10월(12~13일)에는 전국 유통량의 60%를 차지하는 새우젓 축제(지도 첫갈타운)가, 11월(2~3일)에는 빨나지 축제(암해읍)가 각각 열린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정해역에서 잡힌 신안 수산물은 집과 맛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며 "매월 열리는 수산물 축제에 오면 입이 즐거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se@

## '볼라벤' 파손 목포 갯바위 해상보행교 개방

태풍으로 부서져 새로 제작한 목포 갯바위 해상보행교가 개방됐다. 해상보행교는 평화광장과 갯바위 문화타운을 연결하고 천연기념물 500호인 갯바위를 바다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2008년 만들었다.

목표 118m, 도교 40m, 부잔교 140m 규모다.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 내습 때 부잔교, 도교, 경관 조형 등 일부 시설물이 파손돼 통행이 금지됐다.

시는 부서진 부잔교, 도교 등을 새로 만들거나 수리하고 경관 조형을 설치해 5개월여 만에 개방하게 됐다.

새로 설치한 해상보행교는 태풍에 대비해 분리형으로 만들었다.

태풍 내습 시 도교에서 부잔교를

떼어내 바다 한가운데로 대피시킬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보행교는 고정식으로 태풍에 취약했다.

갯바위는 풍화(風化穴, tafoni)로 사탕 쓴 사람 형상을 한 '자연의 조각품'이다.

해상 보행교 개통으로 갯바위를 보려는 관광객이 몰려 관광 명소가 됐다.

삿갓 쓴 형상의 바위 2개로 된 갯바위는 목포의 명물 가운데 하나로 아버지를 여읜 젊은이의 슬픔이 서려 있다는 전설과 득도한 스님이 삿갓과 지팡이를 놓아두었던 곳에 바위가 생겼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목포=임영훈기자 lyc@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적중얼가**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주소: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